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 평등한 사회

평민당 여성 정책

1. 대통령 산하 양성평등모자보건위원회 설치
2. 사법부내 여성차별구제기구 구성
3. 남녀 동일한 교육환경의 제공
4. 여성 고용 평등을 위한 제도 마련
5. 기혼여성 취업확대를 위한 직종개발
6.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구현
7. 「여성직업훈련정보센터」 설치, 운영
8. 지역, 직장내의 탁아소 설치, 학교 급식 실시
9. 임신, 분만시 모든 여성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
10. 여성 세대주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11. 민주적 가정을 위한 가족법 개정



기호 3 김 대중 평민당 후보



중산층·근로자·농어민의 당, 우리모두의 당

평화민주당

여성선거대책위원회

나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신에게

.....나는 당신과 결혼한 이래 남편으로써 매우 불충분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난의 시대로 접어든 이 1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깊은 애정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며 자식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발 당신 자신을 소중히 하고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서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힘써 주기 바랍니다.....

1981년 3월 19일

-「김대중 옥중서신」 중에서-

일상적인 폭력과 구속, 검문과 검색의 시대

힘든 대입시험에 합격해 큰 기쁨을 가져다준 우리의 아들 딸들은 감옥 속에서 신음하고 전국 곳곳의 감옥마다 줄을 잇는 어머니들의 회한과 통곡의 물결—.

바로 현 정권이 만들어 놓은 현대 가정의 모습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제별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고물가·저임금 속에서 우리 주부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내집마련을 위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여성들은 복종과 한탄, 양보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울러 우리 스스로의 적극적 삶을 위해서 당당하고 주체적인 목소리를 가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된 사회, 여성이 화목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회, 여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민당은 여러분의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평민당 김대중 후보가 여성과 함께 가는 사회’

안정된 사회 구현

고문이나 최루탄에 의한 죽음이 없는 사회

학원에서는 자유로이 학문을 연구하며 토론을 벌일 수 있고, 근로자는 적정임금을 받으며 작업장에서 즐거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민정당의 안정은 강압된 안정으로 문제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평민당은 모든 사람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하여 안정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물가안정

뒷거래와 접대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풍토가 정치·경제적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특혜받은 몇몇 기업의 독점과 허구적인 안정논리에 의해 물가정책이 잘못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개인마다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나라, 시장바구니에 행복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며, 국가적으로 물가안정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역·직장내의 탁아소 설치

자녀양육과 가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역·직장내에 탁아소 설치를 의무화 하고 학교급식은 국민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사부담의 경감이라는 목적외에도 자라나는 2세대의 안정된 생활공간과 영양개선·체력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므로 지원과 감독을 통해 실현하겠습니다.

사법부내 여성 차별 구제 재판소 설치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성폭력 및 가정내에서의 아내 구타 등 사회전반에 행해지는 여성 차별의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써 사법부내 여성 차별 구제 재판소를 설치하여 법적인 강제력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장·보호하겠습니다.

평민당의 김 대중 후보가 여성과 함께 가고자 하는 사회!

1. 8시간만 일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근로기준법에는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1주 6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로(잔업)을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생산량, 수출목표 달성의 기치하에 먹고 자는 시간마저도 빼앗긴 것이 민정당이 말하는 선진조국의 현실입니다.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쉬고, 8시간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최저생계비 보장에 평민당은 가장 앞장 설 것입니다.

2. 고용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제반 차별행위(임금·채용·승진·교육기회)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희생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여성의 권익을 보장받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동일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초임을 남녀 같게 하고, 생산성과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합리적 임금체계를 실시할 것입니다.

3. 여성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사회

여성의 출산은 사회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절대적 조건입니다. 따라서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시에 의료보험을 실시하여 모든 여성이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여성의 취업을 전담하는 「직업훈련정보센터」의 설립

학교에서도 남성처럼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여성에게 사회생활에서 균등한 대우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평민당은 「직업훈련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여성의 능력을 파악·관리하고, 여성에 맞는 다양한 직종을 개발·훈련하여 여성의 즐거운 사회참여를 도모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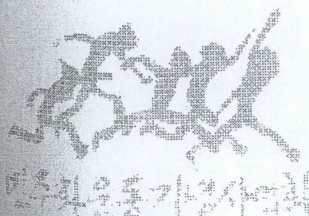
평민당 여성 정책

1. 대통령 산하 양성평등모자보건위원회 설치
2. 사법부내 여성차별구제기구 구성
3. 남녀 동일한 교육환경의 제공
4. 여성 고용 평등을 위한 제도 마련
5. 기혼여성 취업확대를 위한 직종개발
6.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구현
7. 「여성직업훈련정보센터」 설치, 운영
8. 지역, 직장내의 탁아소 설치, 학교 급식 실시
9. 임신, 분만시 모든 여성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
10. 여성 세대주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11. 민주적 가정을 위한 가족법 개정



중산층 · 근로자 · 농어민의 당, 우리모두의 당

평화민주당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대중선생을 범국민적 대통령후보로 지지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민족, 민주, 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의 방향하에 여성운동세력간의 조직적 연대를 이루어 나가며,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여성해방쟁취를 위해 22개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일하는 단체입니다.

1. 4천만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6월투쟁의 성과를 이제는 영원히 이 땅에서 군부독재를 종식시킴으로써 마무리져야 할 때입니다.

2천만 여성 여러분!

지금 우리는 80년 광주 민중 2,000여명을 학살한 군부독재세력이 재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로 광분하는 가운데 우리 민중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과제를 실현시킬 군부독재종식의 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그 지긋지긋한 군부독재의 살인, 고문, 강간, 최루탄 공화국 속에서 고통당하느냐 아니면, 6월투쟁의 성과를 마무리지어 진정한 안정과 민주화가 실현되는 사회를 맞이하느냐의 중대한 결단의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6월투쟁의 한 주역이었던 여성여러분!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노태우의 집권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또다시 최루탄에 맞고, 죽고, 고문당하고 감옥으로 끌려가야 하겠습니까? 노태우가 말하는 안정이란 당선만을 위한 국민의 침묵과 억압만을 강요하는 거짓 안정임을 우리는 집권 7년동안 익히 경험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장기집권과 부정축재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았읍니다. 파렴치한 부천서 성고문사건, 범양사건, 박종철, 이한열군 죽음이 바로 이를 증명하지 않았읍니까!

2천만 여성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부독재가 종식되어야 하며, 광주에서의 억울한 죽음과 학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노태우의 당선을 막아내고 진정한 민주정부 수립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야 합니다.

군부독재종식의 날, 민주승리의 날이 얼마 멀지 않았읍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체력을 퇴진시키기 위해 양 김선생의 단일화를 호소해 왔읍니다. 국민들이 단일화 요구에 집착하여 있는 동안에 노태우는 온갖 선심공약과 물품공세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독재정권의 재집권을 막아내기 위한 단일화 문제는 단일화를 요구한다고 쟁취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양 김선생의 도덕적 결단에만 맡겨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또한 미국과 군부독재세력의 파렴치한 공작정치가 존재하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선거를 불과 며칠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국민의 힘으로 범국민적 대통령후보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대통령은 첫째, 군부의 정치개입을 확고히 막아낼 수 있는 사람, 둘째, 민족자주와 민족통일 의지가 확고하며 구체적 정책으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 셋째, 정치적 경제적으로 민중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대중 선생을 범국민적 대통령 후보로 지지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군부독재정권 하에서는 결코 여성들의 생존과 고난이 해결될 수 없음을 생활의 현장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당면의 민주화 과제인 민족자주와 민족통일의 문제, 민중생존권의 문제, 그리고 여성의 자주적 삶의 문제를 보다 가깝게 민중의 편에 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 김대중 선생을 적극 지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김대중 범국민적 대통령 후보는 첫째, 현재 진전되고 있는 민주화 과제와 이것이 민중의 힘에 의해 쟁취된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군부의 정치개입을 막아내고 군부의 반격을 분쇄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화투쟁에 광범한 대중의 참여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성취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70년대부터의 오랜 고난 속에서 민중의 한과 아픔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여성권의 실현에 있어 가장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실천의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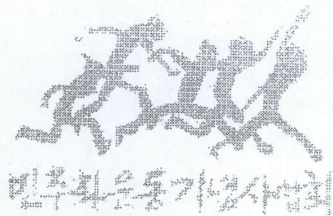
우리는 모든 힘을 총집결하여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승리의 그 날을 쟁취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현재 노태우가 자행하고 있는 부정선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민주화는 결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온갖 부정부패와 부정선거의 비리를 고발하고 반드시 공정선거를 쟁취하여 다시는 이 땅에 군부독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힘으로 막아냅시다./

1987년 12월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이우정

서울·중구 정동 1-23 (☎ 737-6891, 738-2883)



김대중선생 단일후보 범국민 추진위원회

합석헌외 5638명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가맹단체

서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경북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전남민주주의청년운동연합
민중불교운동연합

경기북부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경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충남민주운동협의회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강원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가맹단체

가톨릭농민회여성부
민중불교운동연합여성부
여성민주회
여성의 전화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민통련여성위원회
기독교여민회
민중민속미술협의회 여성부
또 하나의 문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

한국교회여신도연합회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여성부
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여성부
주부아카데미협회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여성분과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운동단체

민주쟁취국민운동노동자위원회
민주쟁취국민운동 전남노동자공동위원회
경남지역노동자협의회

부산노동자협의회

민주쟁취국민운동 전북노동자공동위원회
민주쟁취국민운동 대구·경북민주노동조건선택노동자공동위원회
운수노동자협의회

기타 민주화 운동단체

민주동우회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불교인 223명 (지선스님, 진관스님 등)
천주교사제 202명 (김승훈 신부, 신현봉 신부 등)
이땅의 작가들 (김병걸 외 224명)
이땅의 미술인들 (최열 외 229명)

민주기도협의회
서울도시빈민노점상연합회

한국정치범동지회
도시빈민운동연합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산하단체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수원지구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대전지구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천안지구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인천지구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원주지구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북지구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제주대 총학생회
용인, 성남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대구지구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남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청주지구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서울지역 여학생 대표자 협의회
공주교도소 민주화운동 옥중투쟁위원회
한국기독교 학생회 총연맹 (K.S.C.F)